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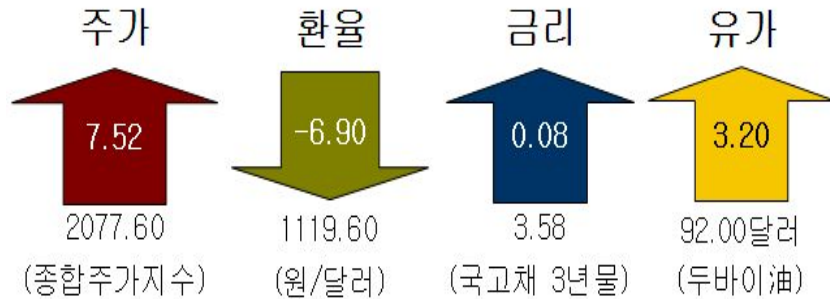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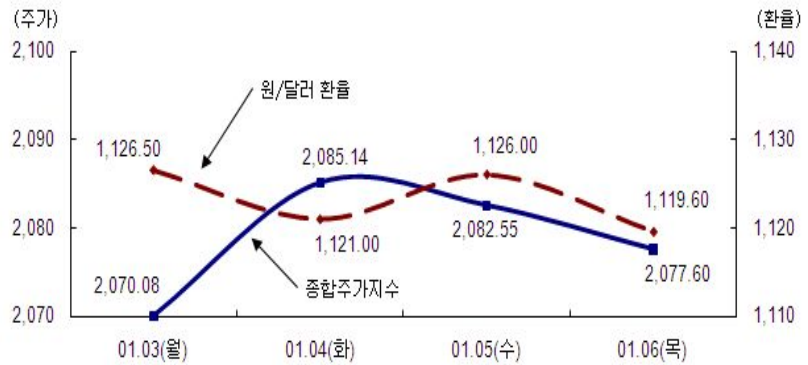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글로벌 2020 트렌드

1. 동북아 3국 전성기
2. 전쟁의 진화
3. 호모 헌드레드
4. 황색 인종의 대이동
5. 네오 시민 혁명
6. 한반도 르네상스
7. 지역 기축통화
8. 마이 로봇 시대
9. 하이라이프 사회
10. 패슬로 비즈니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01.03~01.0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글로벌 2020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4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임 희 정 연구 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2020 트렌드

■ 2011년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앞으로 10년 후인 2020년에는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산업 등 각 부문에 있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외교

① 동북아 3국 전성기(Far East Movement)

한·중·일의 경제, 외교, 무역, 교육 등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대는 동북아 3국의 전성기가 실현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 통합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확대로 세계 최대 경제권이 형성되어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2000~2009년) 17.6%에서 2010년대(2016~2020)에 23.6%까지 증가할 것이다. 둘째, 2020년에는 한중일 간 FTA 체결 등으로 3국간 무역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동북아 3국은 상호간 역내 무역 비중이 70%를 상회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3국내 금융협력 등을 통해 세계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넷째, 2020년에는 동북아 3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가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전쟁의 진화

2020년의 국제 사회는 이념과 종교, 경제와 산업 전쟁을 넘어 전략적 광물 자원과 환경 관련 이슈 및 정보 주권 등을 둘러싼 5가지 차원의 국경 없는 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략 광물 등 희소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녹색 성장의 핵심 분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그린에너지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신흥국의 물 사용 급증으로 인해 물 확보와 수질 관리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예상된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규제가 심화되면서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섯째,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및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한 정보 주권 전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 사회·문화

③ 호모 헛드레드(Homo-Hundred)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100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여 2020년에는 '호모 헛드레드'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2010~2020년 80세 이상 노인 증가율이 3% 후반을 나타내며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고,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가 2020년에는 31개로 증가하며,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호모 헛드레드 시대 개막에 따라 경제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선진국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이 급증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측면에서는 바이오산업, 맞춤형 의료산업, 고령친화형 산업이 발전할 것

이다. 국내 고령친화형 산업 규모는 2010년 약 3조 원에서 2020년 약 11조 원으로 274% 급성장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또한, 사회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 빈곤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유전자 차별로 인해 취직이나 결혼 및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바이오 디바이드 현상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④ 황색 인종의 대이동(The Third Wave of Globalization)

20세기에 본격화된 상품(The First Wave)과 자본(The Second Wave)의 세계화에 뒤이어 21세기에는 사람의 이동이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제3의 세계화(The Third Wave of Globalization)** 물결이 확산될 것이다. 2010년 2억 1,390만 명이던 이주자들이 2050년이면 약 4억 5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후진지역에서 선진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양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황색을 의미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구이동은 2020년에도 지속된다. 첫째, 선진지역의 다문화화가 가속화되면서 문명충돌현상이 공동체 단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노동인력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본국은 성장잠재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주자 유입은 선진지역 경제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인력의 단독 이주로 본국에서는 가족 해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섯째, 불법이주가 대세를 이루면서 국제 떠돌이들이 대규모로 등장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인 노동인력의 권리주장이 증가할 것이다. 일곱째, 이주자 본국과의 연결고리를 경제적 기회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⑤ 네오 시민 혁명

2020년대의 시민들은 가상 인격을 통한 관계 형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과거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자유주의가 정착되고 자본주의가 확산되었다면 네오 시민 혁명은 국적이나 민족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가상 사회에 시민들을 정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 공간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으로는 新개인주의에 의한 정치적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놀이에서 노동으로 변질되며, 경제적으로는 가상 상품 시장의 부상, 소비자 중심 시장의 완성과 같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 경제

⑥ 한반도 르네상스

2020년에는 한반도가 남북한 평화협정 및 경제 통합 등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한반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2020년 남북 경제가 통합될 경우, 국토 면적은 220,258km로 세계 84위, GDP 2조 770억 달러로 세계 12위, 인구 7,500만 명으로 세계 17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 중심지로 부상하여, 에너지·물류·문화·관광 협력 등을 통해 동북아 전성시대의 진원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은 섬나라에서 탈피하여 대륙 경제권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간 자유 왕래가 실현되고, 남남북녀 커플이 탄생하는 등 남북 자유연애 시대도 도래할 전망이다.

⑦ 지역 기축통화(Regional Key Currency)

국제금융시스템이 미 달러화의 단일 기축통화체계에서 2020년에는 달러, 유로, 엔, 위안(또는 아시아 공동통화) 등의 주요 통화가 역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기축통화시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기축통화시대에는 글로벌 결제통화 다변화, 신규 지역공동통화지역이 형성되면서 주요 통화 간 역내 세력 확대로 과도기적 세력균형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역내 경제블록 강화에 따른 경제 대외규모 확대로 신규 공동통화지역의 영향력은 증대되나, 역외 국가에 대한 무역 금융 보호주의는 심화될 것이다. 한편, 지역 기축통화의 발전은 역외 금융위기의 역내 전염성은 약화시킴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⑧ 마이 로봇 시대

지금까지 기계가 가사를 보조해주는데 그쳤다면 2020년에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서비스를 수행하는 마이로봇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핵가족화,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가사 여가 등 개인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이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IT·BT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20년에는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로봇이 현실화되면서 많은 가정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로봇의 등장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사회서비스가 제고되는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로봇 문화 형성 및 인적 자원의 재교육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⑨ 하이라이프(Hy-life) 사회

2020년경에는 수소 연료전지(H₂ Fuel Cell)를 탑재한 자동차, 주택이 상용화되어 일반에 보급되는 '하이라이프'(Hy-Life)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가정용 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제로주택(ZEH)의 신축이 의무화되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길거리의 주유소는 수소충전소(H-Station)로 대체되기 시작할 것이며, 수소 충전설비를 갖춘 아파트나 빌딩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양방향·분산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이 구축되어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수소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소비가 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⑩ 패슬로(Faslow) 비즈니스

2020년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스피드'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겠지만, 무제한적으로 달려가는 자본주의 생활 속도에 대한 염증으로 '느림'이나 '평온'을 열망하는 사회문화적 흐름 또한 깊숙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와 '느리게'가 공존하는 패슬로(faslow=fast+slow) 트렌드가 보편화되면서, '스피드' 강요 사회에서 '슬로 라이프'를 지향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겨냥한 패슬로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이다. 속도전 속의 슬로 라이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명상, 파워냅 등), 짧거나 의미 있는 여행 상품, 하루짜리 시티 트립, 볼런투어리즘, 슬로시티 체험, 빠르게 즐기는 슬로우푸드, 캡슐커피 등 '몰스킨 신드롬'(moleskin syndrome) 비즈니스(아날로그풍 제품) 등이 활기를 띠는 것이다.

I. 트렌드 선정 배경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산업·기술과 학 분야에서 펼쳐질 양상을 분석하여 2020년 각 부문에서 주요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흐름이 전망됨
- 2020년 정치·외교 부문에서는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동북아 3국 전성기(Far East Movement)’, ‘전쟁의 진화’가 선정됨
 - 사회·문화에서는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 ‘황색 인종의 대이동(The Third Wave of Globalization)’, ‘네오 시민 혁명’의 3개 트렌드가 예상됨
 - 경제 부문에서는 ‘한반도 르네상스’와 ‘지역 기축 통화(Regional Key Currency)’가 예상됨
 - 산업 부문에서는 ‘마이 로봇 시대’, ‘하이라이프(Hy-life) 사회’, ‘패슬로(Faslow) 비즈니스’의 3개 트렌드가 예상됨

< 2020년 글로벌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정치·외교	- 동북아 3국 전성기(Far East Movement) - 전쟁의 진화
사회·문화	-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 - 황색 인종의 대이동(The Third Wave of Globalization) - 네오 시민 혁명
경제	- 한반도 르네상스 - 지역 기축통화(Regional Key Currency)
산업	- 마이 로봇 시대 - 하이라이프(Hy-life) 사회 - 패슬로(Faslow) 비즈니스

II. 글로벌 10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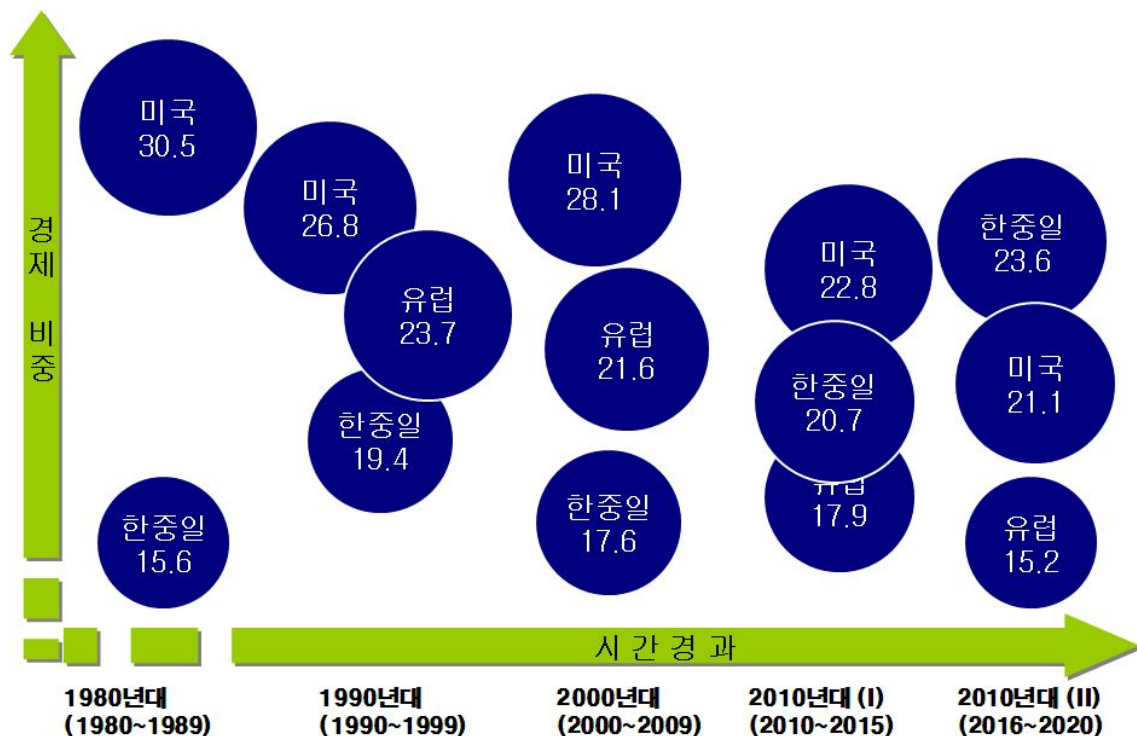
1. 동북아 3국 전성기(Far East Movement)

■ (의미와 현황) 한중일 3국의 경제, 외교, 무역, 교육 등에서도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대는 동북아3국의 전성기가 실현될 것임

○ 동북아 3국의 경제 위상 : 한중일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2010년대에서 유럽과 근접한 규모로 성장하고 미국과의 격차로 줄이고 있음

-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급증 등에 힘입어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9.3%에서 2010년대(II) 23.6%로 비중이 상승
-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1980년대 평균 2.3%에서 2010년대(II) 14.4%로 증가. 이러한 추세는 동북아 경제 위상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한편 미국은 1980년대 30.5%에서 2010년대(II) 21.1%로 하락, 유럽은 1990년대 23.7%에서 2010년대(II) 15.2%로 하락 전망

< 주요 국가의 시기별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주 : 1) 1980년대는 1980~1989년, 1990년대는 1990~1999년, 2000년대는 2000~2009년, 2010년대(I)은 2010~2015년, 2010년대(II)는 2016~2020년 기간을 의미.

2) 2010년대(II)는 2010년대(I)의 연평균 명목성장률을 이용하여 추정함.

■ (내용) 한중일 3국은 경제 통합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적 위치에서 주도적 위치로 전환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역할 증대

-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확대로 세계 최대 경제권 형성
 -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국으로 1위 국가인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성장세를 지속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까지 합해져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중국이 동북아 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일본과 한국 경제권까지 합해진다면 세계 최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30년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하고 이는 동북아 경제권 위상 증대로 이어짐
 - 일본 내각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美中の 세계 경제 비중이 각각 24.9%와 8.3%지만 2030년에는 중국 23.9%, 미국 17.0%로 역전될 전망이다
 - 골드만 삭스의 짐오닐 회장에 따르면 2027년경 중국은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 할 것으로 전망¹⁾

< 한중일 3국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단위 : %, 억 달러, 달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한중일 3국	GDP	63,993 (19.9)	76,540 (16.8)	121,223 (19.6)	178,709 (21.8)
	성장률	8.4	11.3	10.5	9.5
	중국	GDP	11,985	22,569	57,451
	1인당 GDP	946	1,726	4,283	7,258
일본	성장률	2.9	1.9	2.8	1.7
	GDP	46,674	45,522	53,909	65,175
	1인당 GDP	36,800	35,633	42,325	51,663
한국	성장률	8.8	4.0	6.1	4.0
	GDP	5,334	8,449	9,863	13,713
	1인당 GDP	11,347	17,551	20,165	27,606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주 : 1) 성장률은 %, GDP는 억달러(명목), 1인당 GDP는 달러(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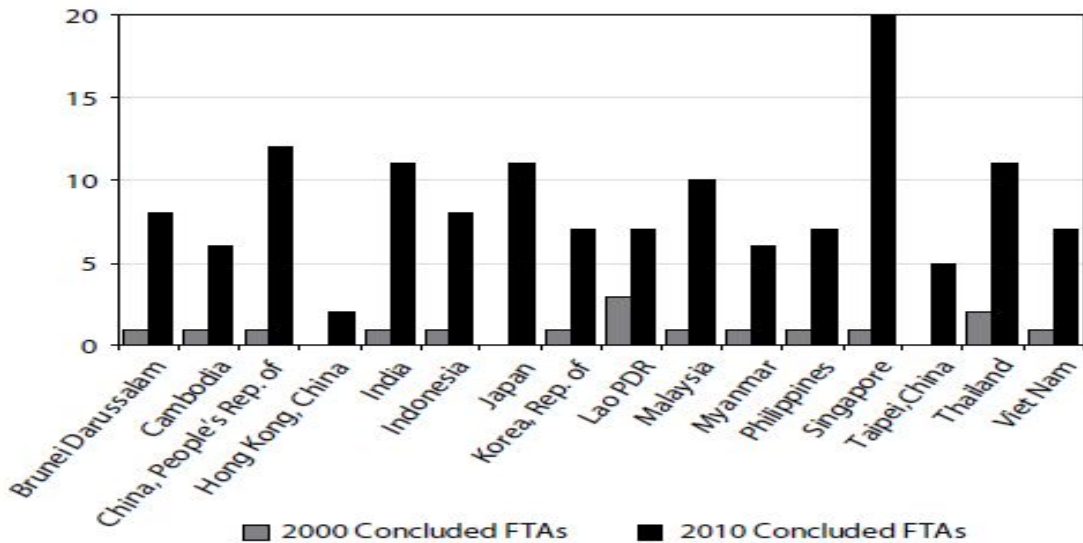
2) () 안은 세계 총GDP대비 비중임.

1) 2008년 골드만 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GDP기준 세계 경제규모가 중국이 4위 차지하였으나 2050년 경에는 중국이 1위 차지하며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됨.

○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권 위력 확대

- 2020년에는 한중일 간의 FTA가 체결됨으로써 3국간 주요 무역 상대국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동북아 경제권의 규모도 확대될 것임
 -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일본 FTA와 한중국 FTA가 체결됨으로서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공동체 구상이 추진될 수 있음
 - 특히, 한중일이 모두 주요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 가운데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가 완결됨으로써 동북아경제권 규모 확대
 - 한국은 미국, 유럽, 인도, ASEAN와 FTA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고, 중국은 ASEAN, 홍콩, 대만과 FTA 혹은 근접한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도 ASEAN과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FTA 체결 대상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임
 - 발효 혹은 서명/협상 타결된 FTA : 중국은 2010년 8월 현재 12개 국가와 체결, 일본은 11개 국가와 체결, 한국은 7개 국가와 체결. 한국은 2010년 11월에 한-페루 FTA 서명/협상 타결로 8개 국가로 늘어남

< 아시아 지역의 발표된 FTA 추이(2000 vs 2010) >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FTAs: Trends, Prospects, and challenges, No. 226, October 2010.

주 : Concluded FTAs는 2010년 8월 현재 발효 혹은 서명/협상 타결된 FTA를 의미.

- 한중일 3국은 상호간 역내 무역의 비중이 70%를 상회할 것임
 - 역내 교역 비중 2위 : 역내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에 근접한 70%를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 교역 대상국 :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은 중국, 2위는 유럽, 5위는 일본. 중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은 미국, 2위는 일본, 4위는 한국. 일본의 제1위 교역대상국은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한국

- **3국의 역내 수출** : 한국 총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내외. 중국 총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 일본의 총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
- **3국의 역내 수입** : 한국 총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중국 총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 일본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

< 한중일의 수출입 역내 교역 현황(2009년) >

(%)

	한국		중국		일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한국	-	-	23.9	15.7	6.0	14.3
중국	4.5	10.2	-	-	8.1	13.1
일본	8.1	4.0	18.9	22.3	-	-

자료 : 무역 협회.

주 : 2009년 기준임.

< 주요 지역의 역내 교역 현황(2009년) >

(%)

유럽	아시아	북미	남중미	중동
72.2	51.6	48.0	26.1	15.5

자료 : WTO, World trade developments in 2009, 2010.

○ 금융위력 발휘

- **아시아통화기금(AMF) 체제 형성을 통한 영향력 증대**
 - 기존의 국제금융시스템과 경제 체제에서 동북아 3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동북아경제체제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위해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통해 역내 환율, 자본 흐름 등에 대한 협의
 - 한중일 3국은 국제통화기금과 G20에서의 위상 증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과 경제 체제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엔화 등 다양한 대체통화의 등장으로 다중기축통화 체제가 형성될 것임
- **세계 제 1의 외환보유 지역으로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 한중일 4국의 외환보유액은 2010년 9월 현재 4조 477억 달러로 2010년 한중의 3국의 GDP의 33.4%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7년 1조 5,282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한 후, 2008년 1조 9,460억 달러, 2009년 2조 3,992억 달러, 2010년 6월 현재 2조 4,543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음

○ 유학생 증가 등 인적 교류 확대

- 2020년에는 동북아 3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에는 미국 등 주요국의 학생들이 동북아 3국으로 공부하러 옴으로써 이들 지역의 유학생 수는 전체 유학생 대비 15% 이상을 차지할 것임
 -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대상지는 미국이지만 2020년에 가서는 정치·경제적 통합 증대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임
 - 이러한 흐름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북아 3국의 다른 지역의 유학생 유입도 늘어날 것임
- 이러한 흐름은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를 통해 보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양국에서 공부하고자하는 중국과 한국의 유학생들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09년 법무부의 출입국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80,985명이고 이중 중국인이 78.1%인 63,209명인 것으로 확인
 - 반대로 중국의 전체 유학생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또한 뚜렷. 2008년 중국 교육부 통계를 보면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숫자는 가장 많은 6만 6,000여 명으로 추정

■ (시사점과 과제)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로 커진 경제 공동체 대비 필요

- (경제) 한중일의 경제 협력 강화, 역내 금융시장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
 - 동북아경제권 내의 자금흐름 안정화를 위한 정례적인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아시아통화기금(IMF)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필요
 - 중국, 일본, 한국의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
- (무역) 한중일의 지역내 수출 시장 확대
 - 금융 및 실물부문의 결속력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제1의 수출 시장으로 확대됨. 반면, 전세계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커짐으로써 동북아 지역내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짐
-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중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 금융부문의 결속력은 강화됨
 - 한중일 협력 단위를 넘어 지역 블록 차원으로 확대되고 지역내 달러의 영향력은 작아짐
 - 한중일 지역통화의 결제 비율이 높고 지역 차원의 금융·투자 전략 및 상품이 증대되고 있어 지역내 금융시장을 관리할 기구의 규모 증대 필요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통화를 기초로 하여 3국간 무역 거래시 결제 가능한 단일 통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필요

경제연구본부 임희정(02-2072-6218)

2. 전쟁의 진화

○ (의미) 2020년 국제 사회는 이념과 종교, 경제와 산업 전쟁을 넘어, 자원과 환경 이슈 및 정보 주권을 둘러싼 국경 없는 전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의 국가 간 전쟁은 주로 정치적 패권과 종교적 차이 및 자국의 경제적 이권 등을 둘러싼 충돌이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음
 - 과거 2차세계 대전, 중동지역 분쟁 등 주로 영토 확장과 체제 우월성 등 정치적 패권을 둘러싼 마찰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었음
 - 최근에는 산업 및 경제 패권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무역 분쟁과, 산업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20년에는 그린에너지, 물, 탄소, 희소 자원, 사이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원, 환경, 정보 등을 둘러싼 복합적 전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 녹색 성장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그린에너지와 수 자원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 보안과 직결되는 중요 정보에 대한 해킹, 개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의 증가로 사이버 전쟁이 격화될 것임

< 전쟁 유형의 진화 >

구분	과거	현재	미래
전쟁 유형	이념 전쟁, 종교 전쟁 영토 분쟁 등	산업 전쟁, 자원 전쟁 무역 분쟁 등	그린에너지 전쟁, 물 전쟁 탄소 전쟁, 자원 전쟁, 사이버 전쟁 등
주요 원인	영토, 체제, 종교 등	경제력, 무역, 자원 등	에너지, 환경, 정보보안 등
대립 대상	민주진영 vs. 공산진영 기독교국 vs. 이슬람국	선진국 vs. 신흥국 자원보유국 vs. 자원빈국	환경선진국 vs. 환경후진국 정보선진국 vs. 정보후진국

○ (내용) 그린에너지와 수자원 등 녹색산업 및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장선점, 국가와 개인의 정보 주권을 둘러싼 다양한 전쟁 양상이 예상됨

- **희소 자원 전쟁** :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전략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이전에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향후에는 희토류 등 산업에서 필요한 희소 자원을 대상으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것임
 - 전 세계의 주요 광물 자원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 중남미와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전략 광물의 국제수요 급증과 자원 민족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 자원보유국들의 수출 중단, 가격 인상 등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세계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 및 점유율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대 전략 광물	동	칠레 (29.6)	페루 (11.7)	멕시코 (7.0)	미국 (6.5)	인도네시아 (5.7)
	철광석	우크라이나 (18.8)	러시아 (15.6)	중국 (13.8)	호주 (12.5)	브라질 (10.0)
	아연	중국 (16.5)	호주 (10.5)	페루 (9.5)	카자흐스탄 (8.5)	미국 (7.0)
	우라늄	호주 (22.7)	카자흐스탄 (14.9)	러시아 (10.0)	남아공 (8.0)	캐나다 (7.7)
	석탄	미국 (28.9)	러시아 (19.0)	중국 (13.9)	호주 (9.2)	인도 (7.1)
	니켈	호주 (36.6)	뉴칼레도니아 (10.0)	러시아 (9.3)	쿠바 (7.7)	브라질 (6.3)
6대 준 전략 광물	크롬	카자흐스탄 (50.8)	남아공 (36.7)	인도 (12.4)	미국 (0.2)	-
	망간	우크라이나 (25.9)	남아공 (24.1)	호주 (16.1)	인도 (10.4)	가봉 (9.6)
	텅스텐	중국 (64.3)	러시아 (8.9)	미국 (5.0)	캐나다 (3.9)	볼리비아 (1.9)
	리튬	칠레 (75.8)	아르헨티나 (8.1)	호주 (5.9)	중국 (5.5)	브라질 (1.9)
	희토류	중국 (36.4)	독립국가연합 (19.2)	미국 (13.1)	호주 (5.5)	인도 (3.1)
	몰리브덴	중국 (37.9)	미국 (31.0)	칠레 (12.6)	캐나다 (5.2)	러시아 (2.8)

자료 : 수출입은행, 「세계자원지도」, 2010

- **그린에너지 전쟁** : 미래 성장을 견인할 산업으로서 그린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및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에너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체에너지로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태양에너지와 풍력, 바이오연료 등 그린에너지 분야의 세계 시장은 향후 10년간 200~30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 확보와 지속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서 그린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둘러싼 선진 각국과 신흥국들의 각축전이 예상됨

<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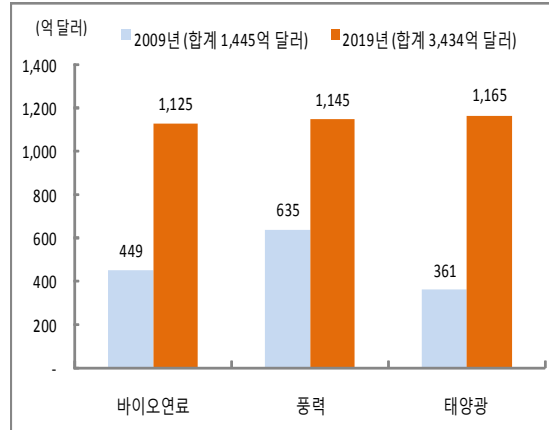
(단위 : 백만toe, %)

구분	2007	2015	2030	연평균 (07~30)
석유	4,093	4,234	5,009	0.9%
석탄	3,184	3,828	4,887	1.9%
가스	2,512	2,801	3,561	1.5%
원자력	709	810	956	1.3%
수력	265	317	402	1.8%
바이오/폐기물	1,176	1,338	1,604	1.4%
기타 신재생	74	160	370	7.3%
총계	12,013	13,448	16,790	1.5%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09, 2010

< 주요 그린에너지 성장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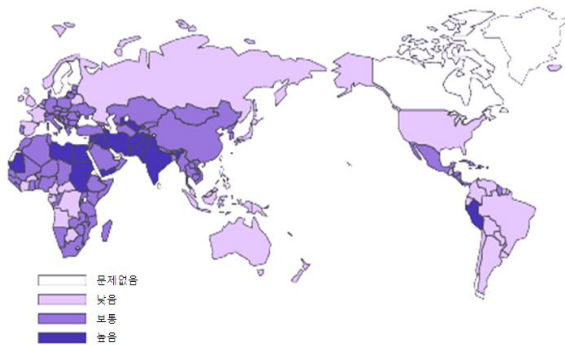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자료 : JETPO 「그린에너지 동향」, Clean Edge 재인용 2010

- **물 전쟁** : 신흥국의 인구 증가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진전 되면서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 현재 세계 약 80여개 국가가 물 부족 국가이며, 향후 중국, 인도, 중동 등의 물 수요 급증으로 2025년에 세계 수요의 60%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다
 -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및 수질 오염에 따른 관심이 급증하면서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도 2025년에는 8,65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의 물 사용 급증으로 수자원 확보 및 수질 관리를 둘러싼 인접국 간의 국제적 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

< 세계 물 부족 위험도 >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재인용 1997

< 세계 물 비즈니스 성장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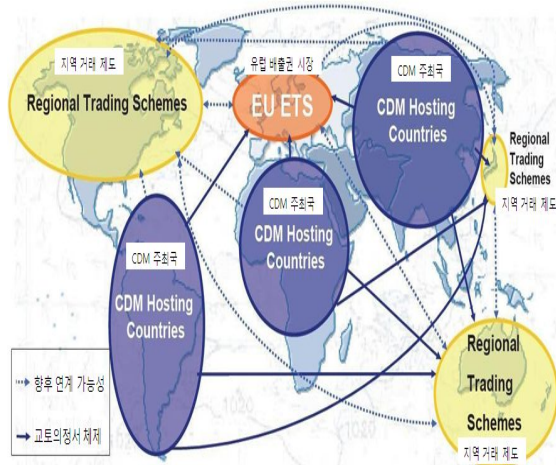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분야	2007년	2025년
상수	1,720	3,880
하수	1,530	3,550
해수담수화	120	440
공업용수 · 하수	240	570
재이용수	10	210
합계	3,620	8,650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Global Water Market 2008 재인용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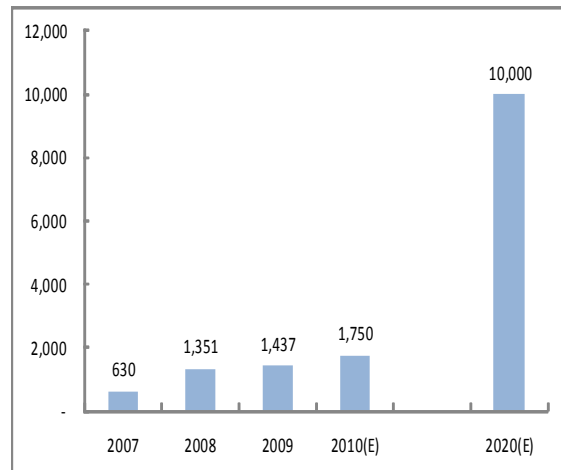
- **탄소 전쟁** :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쟁이 격화될 것임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의무가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2007년 630억 달러 규모였던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09년도에 1,43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연계가 확대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탄소시장 동향의 이미지 >



< 세계 탄소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자료: 일본산업계협회 Deutsche Bank 재인용 2009 자료: World Bank 및 Environment Finance, EU Emissions Trading 2009

- **정보 주권 전쟁** :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 및 개인의 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이 증가하면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전쟁이 예상됨
 - 국가 이권을 위한 상대국의 안보 및 주요 산업 기밀 등과 관련된 정보 획득이나 정보 교란 등 사이버 상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활발해질 것임
 -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보 보안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군대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음
 - 기업, 비영리조직, 개인 차원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이익 유도, 여론 형성, 선동 등의 악의적 활동으로 인해 향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사용량이 1,000m³ 미만은 물 기근 국가, 1,000~1,700m³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함.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452m³(1990년 기준)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

< 주요국의 정보 보호 정책 동향 >

국가별 주요 정책		세부 내용
미 국	- 2008년, '국가종합사이버보안계획' (CNCI) 마련 - 2009년, 'Cyberspace Policy Review' 발표 - 2009년, 사이버보안정책 담당관(CPO) 시행 - 2009년, 사이버시령부 창설	- 해커 공격 대비 사이버 보안요원 육성 - 연방정부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개선 -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민의식 고양 캠페인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 네트워크 보호
EU	- 2006년, '안전한 정보사회구현 전략' 마련 - 2009년,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정책' 추진 - 2009년, '미래 인터넷 2020' 보고서 발간	- 유럽의 e-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향상 - 회원국의 정보보호 역량과 상호협력 강화 - 네트워크 보안 사고에 대응한 대책 수립 - 선제적인 정보보호 활동 필요성 강조
일 본	- 2005년, 내각부 정보보안센터(NSI) 설립 - 2006년, 총무성 u-Japan Policy 추진	- 정부기관 중요 인프라, 기업, 개인 등 4개 영역별로 연차별 추진 대책 수립 - 유비쿼터스 사회의 네트워크 환경 정비 - 2006~2010 중에 정보화 역기능 과제 해소

자료 : 각국 정책 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

○ (시사점)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국경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과 민관 연계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미래 성장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종합 전략 마련이 시급함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연계의 대응 체제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결집에 주력해야 함
- 핵심적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연계의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공급원을 적극 개발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해외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권 확보를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기밀 및 산업재산권 등의 유출과 시스템 공격, 개인 신상에 대한 인터넷 테러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에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사이버 공격도 예상되므로 사이버 군대의 창설 등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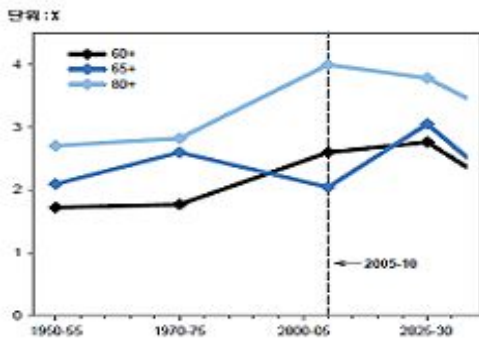
산업전략본부 허만율(02-2072-6236)

3.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 100세)

○ (의미와 현황)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100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여 '호모 헨드레드'시대가 가능해 질 전망

- 80세 이상 노인 인구 급증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10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호모 헨드레드' 시대가 도래
- 세계 노인 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노인 증가율이 2005~2010년 기준 4%를 나타내며 가장 높게 나타나고 향후 2020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가 1990년에는 0개에서 2000년에는 6개로 증가, 2020년에는 31개로 급증하여,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급증하여 '호모 헨드레드 시대'가 개막

< 세계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 국가별 기대 수명 증가 >

국가	기대 수명		
	1990년 출생자	2000년 출생자	2020년 출생자
일본	79	82	85
아이슬란드	78	81	84
스위스	78	81	84
호주	78	81	84
이탈리아	77	80	83
스웨덴	78	80	83

자료: UNCTAD, Demographic indicators

○ (내용) 경제측면에서는 경제성장 둔화, 사회복지 재정부담 급증, 산업측면에서는 바이오³⁾, 개인 맞춤 의료⁴⁾, 고령친화형 산업 발전, 사회측면에서는 노년 빈곤층 심화, 바이오 디바이드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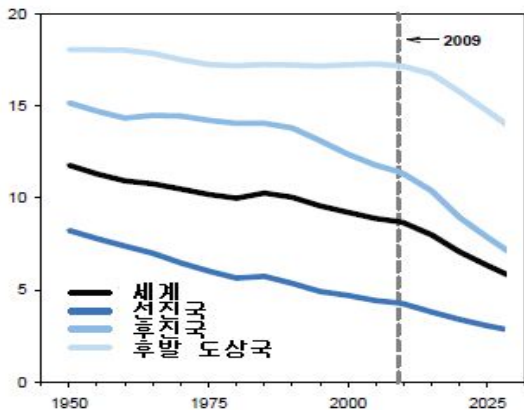
① 경제 측면

-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 호모헨드레드 시대 진입으로 노동인구가 고령화되어 비생산인구로 전환되며 노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계적으로 노인 1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이는 노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
- 한국 또한 국내 총인구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0년에 15.6%로 급증하여 경제 성장패턴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

3) 생물의 고유 기능을 향상시켜 미량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하거나 유용한 생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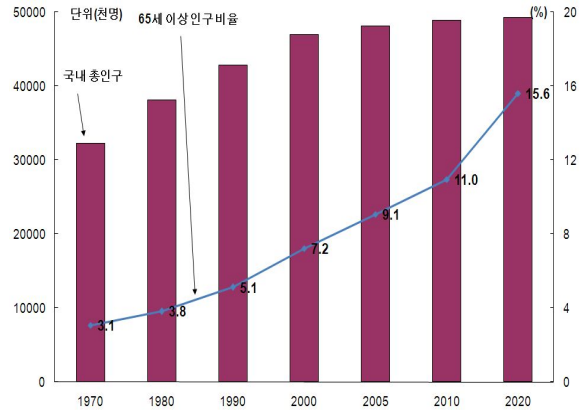
4)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질병 예측, 특정 약물에 대한 환자의 효능 및 반응을 검사할 수 있는 약물유전체 검사(pharmacogenomic test), 그리고 자가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로 크게 구분됨.

<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 비율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주 : 65세 이상 노인 한명 당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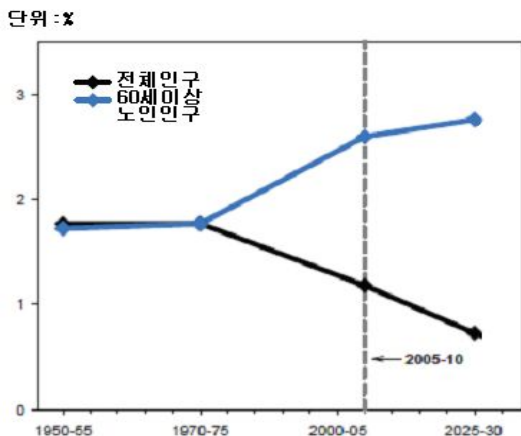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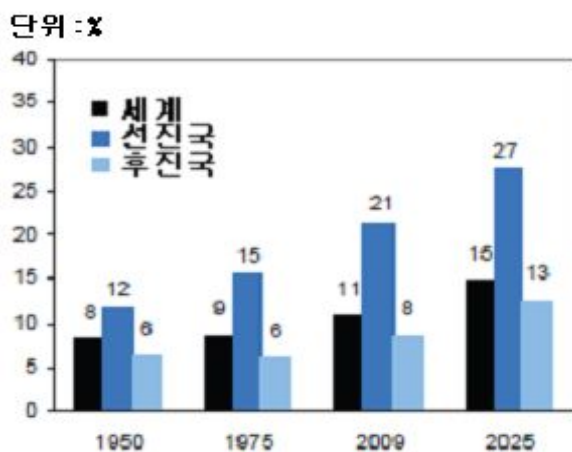
- (선진국의 노인 비중 급증으로 재정부담 증가) 전체 인구 증가율은 하락하는데 노인인구 증가율은 상승하고 특히, 선진국의 노인 비중이 후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을 나타냄에 따라 선진국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급증
 - 전체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5년 기준 1%이하를 나타내는 반면에 노인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5년 기준 3%를 육박
 - 선진국의 전체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기준 27%로 후진국 1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선진국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급증

< 전체인구 및 노인인구 증가율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 60세 이상 노인 비중 >



② 산업 측면

- (바이오산업 급발전) 바이오테크 기업의 증가와 함께 바이오테크 기업의 R&D 지출 증가로 바이오산업이 빠르게 발전
 - 바이오테크 기업이 급증하고 바이오 테크 연구개발비 지출이 증가하여 바이오산업의 급발전이 이루어짐

- 바이오산업 연구개발비용 급증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 세포융합기술, 대량 배양 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기술 등을 포함하며 의약품·화학·식품·섬유·농업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급발전이 이루어짐

< 바이오테크 기업 성장률 > (%)

국가	바이오테크 기업 성장률
프랑스 (2003-2006)	3
독일 (2005-2007)	4
캐나다 (1999-2005)	7
한국 (2002-2006)	11
스페인 (2004-2006)	53
미국 (2004-2006)	22
뉴질랜드 (2005-2007)	58

< 바이오테크 R&D 지출 성장률 > (%)

국가	바이오테크 R&D 지출 성장률
프랑스 (2003-2006)	18
독일 (2005-2007)	20
캐나다 (1999-2005)	10
한국 (2002-2006)	15
스페인 (2004-2006)	33
미국 (2004-2006)	52
폴란드 (2005-2007)	16

자료: OECD, Biotechnology statistics database, January 2009

주: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s)을 의미함.

Biotech firms, Dedicated biotech firms, biotech R&D firms, Dedicated biotech R&D firms 중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고령친화형 산업 발전)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형 산업이 발달 시니어⁶⁾ 르네상스(Senior Renaissance)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국내 시니어 가계의 소비 규모는 2010년 기준 130조원에서 2020년에는 268.9조원으로 급증하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31조 원에서 2020년 약 116조 원까지 급성장 전망
- 더욱이 고령친화형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2010년 41만 명에서 2020년 66만 명으로까지 급증

< 국내 시니어 가계소비 규모와 비중 >



자료: 통계청,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VISION 2030』, 2006. 8.

<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 규모 >

	시장규모 (억 원)	고용창출효과 (만 명)
2002년	63,820	17
2010년	305,409	41
2020년	1,157,466	66

자료: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2005. 2.

- 5) 생물의 체내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우리 몸에 적합한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생체 내의 이러한 과정을 외부장치에 실현시키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반응장치를 바이오리액터라 함.
- 6) 시니어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칭하는 개념임.

- **(개인 맞춤 의료 산업 발전)** 각자의 유전자에 따른 질병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약물, 운동·식이요법, 조기진단을 통해 심장병이나 당뇨병,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보편화 될 전망
 - 기술 발달로 개인 유전체 분석 비용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서 각자의 DNA에 따라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개인 맞춤 의료 산업 발달
 - 특히, 환자별 차이를 고려하여 환자들에 대한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약물유전체 검사를 통한 약물치료가 보편화됨

③ 사회 측면

- **노년층 빈곤현상 심화로 사회갈등 초래**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 빈곤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심화
 - 평균 기대 수명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노년층 빈곤현상이 심화되어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주변화 됨으로써 다양한 사회갈등과 문제를 초래

- **바이오 디바이드 현상 심화** : 인간 유전자 지도 발표로 인해 유전자 정보 공유가 현실화되어 이로 인한 유전자 차별을 의미하는 바이오 디바이드 현상이 심화
 - 유전자 차별로 인해 취직이나 결혼 및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바이오 디바이드 현상 심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
 -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되어 나타나는 바이오 디바이드 현상은 선진국 중심으로 나타나다 점차적으로 글로벌화됨

○ (시사점)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는 급진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고령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등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
 -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령연금과 노인건강보험제도 등 재정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고령친화산업 선진강국에 진입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동인력 감소, 생산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소비와 저축이 감소하고, 세수 감소 및 사회보장비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고령자를 활용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경제연구본부 김민정(02-2072-6212)

4. 황색 인종의 대이동(The Third Wave of Globalization)

○ (의미) 20세기에 본격화된 상품(The First Wave)과 자본(The Second Wave)의 세계화에 뒤이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이동이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는 제3의 세계화에 돌입

- 세계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는 20세기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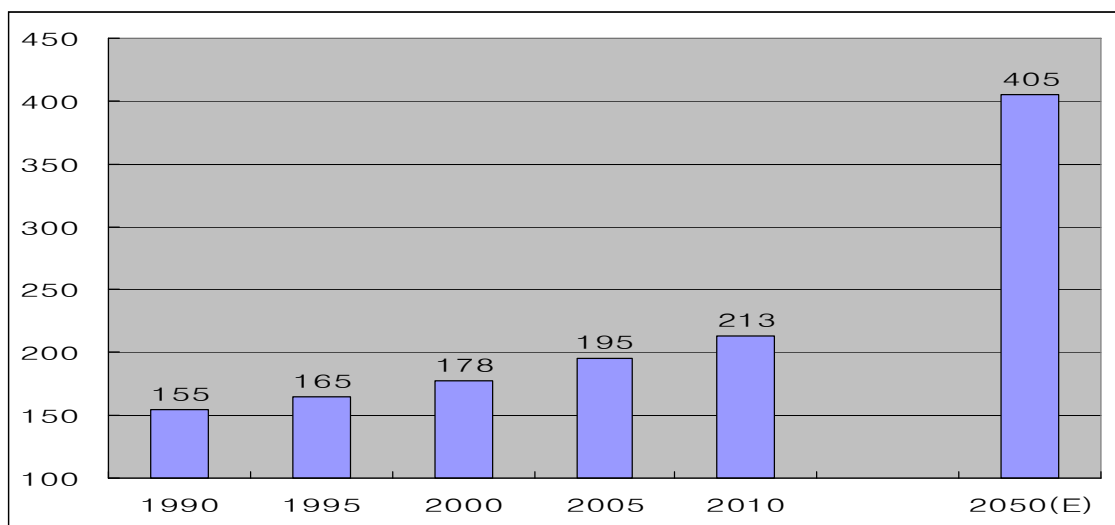
·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와 1991년과 1992년에 체결한 EU와 NAFTA 등과 같은 공동시장의 등장으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막는 장벽은 실질적으로 사라짐

- 전 세계적으로 원래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크게 증가

· 2010년 2억 1,390만 명(1990년과 비교해서 37%증가)에 이르렀던 이주자들이 2050년이면 약 4억 5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
 · 2010년 7월 추정 세계인구 67억 6,800만 명의 3.1% 수준이며 80억에서 105억 명으로 추산되는 2050년 세계인구의 3.8~5%로 증가 예상

< 세계 이주자 추계 >

(단위: 백만 명)



자료 : 1)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http://esa.un.org/migration>).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0*, 2010.

○ (내용) 선진과 후진지역 간의 불균등한 인구구성이 사람들의 세계적인 이동을 가져왔으며 이 추세가 가속화가 됨에 따라 양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가 불가피

-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반적

- 정착지를 중심으로 이주자분포를 보면 유럽에는 가장 많은 7,710만 명, 전체의 약 36%가 거주하고 오세아니아에서는 이주자가 약 6백만 명으로 전체 호주인구의 16.8%를 차지

< 2010년 세계 이주자 통계 >

	이주자 수(백만 명)	전체인구에서의 비중(%)
유럽	77.1	8.7
아메리카	57.5	6.1
아시아	27.5	0.7
중동	26.8	12
아프리카	19.0	2
오세아니아	6.0	16.8
합계	213.9	3.1

자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0*, 2010.

-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은 앞으로도 지속

- 2025년까지 '순 이주비율'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은 음(陰)수 그러나 북미,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은 양(陽)수 표시
- 황색을 의미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구이동은 2020년에도 지속

< 대륙별 '순 이주비율(net migration rate)' 추정 >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0-2025
아프리카	-0.5	-0.6	-0.6	-0.5	-0.4	-0.4	-0.3
아시아	-0.5	-0.4	-0.4	-0.3	-0.3	-0.3	-0.3
중남미	-1.5	-1.5	-2.1	-1.8	-1.3	-1.1	-1.0
북미	4.9	5.6	4.1	3.6	3.6	3.4	3.2
유럽	1.5	1.1	2.3	1.8	1.5	1.4	1.3
오세아니아	3.2	2.7	4.1	2.8	2.6	2.5	2.4

자료 : UN, Net migration rate (<http://esa.un.org/un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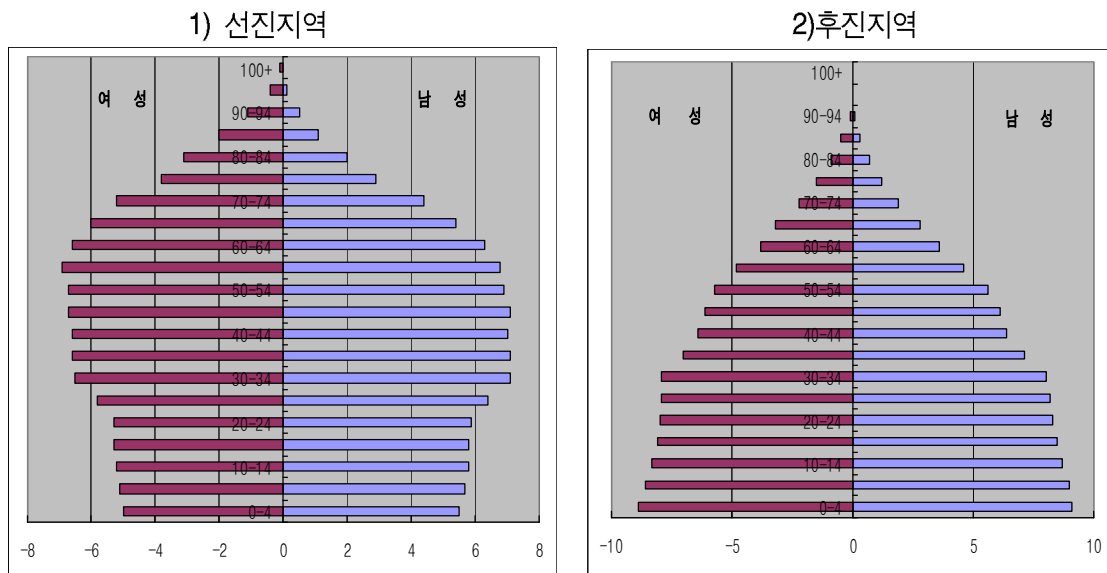
7) 순 이주비율(net migration rate)는 일정 기간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새로 유입된 인구 (immigrants)에서 새로 유출한 인구(emigrants)를 뺀 수치를 1,000으로 나눈 값을 의미.

- 갤럽의 여론조사⁸⁾는 성인인구의 16%에 달하는 약 7억 명이 이주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가장 높은 이주 의사를 보인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응답자의 38%였고 전체응답자의 24%가 미국을 정착지로 선택

-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인구구성의 차이가 가장 큰 동인

- 2020년 세계전체, 선진지역 그리고 후진지역의 '나이 중앙값(median age)'은 각각 31.3세, 42.2세 그리고 29.5세 후진지역인구가 상대적으로 젊음
- 2050년까지 선진지역의 노동력은 약 6억 명 수준 유지가 전망되나 개발도상 지역은 2005년 24억, 2020년 30억 그리고 2040년 36억 명으로 증가⁹⁾

< 2020년의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나이에 따른 인구구성 추계 >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http://www.census.gov>).

- 질적으로도 21세기의 인구이동은 그전과 차이를 보임

-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이주는 주로 유럽과 남북아메리카사이에서 발생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무대
- 2009년의 경우 이주자들은 전 세계 원조총액의 3배가 넘는 약 3,170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였지만 이전에는 거의 없거나 적은 규모

8) Gallup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135개국에 걸쳐 15세 이상 성인 259,542명을 대상으로 이주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11월에 발표 (Gallup, 700 million Worldwide Desire to Migrate Permanently, Nov 2, 2009).

9)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0*, 2010.

- 거의 절반이 여성으로 본국에 자녀들을 두고 이동한 경우가 많지만 이전에는 여성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동
-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주자들은 휴대전화로 본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본국의 방송을 시청하고 투표권까지 행사하지만 이전에는 단절
- 이전에는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통제력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행사

< 과거와 현재의 이주특성 비교 >

	이전	현재
범위	유럽과 남북아메리카	전 세계
송금	소규모	대규모
여성의 역할	가족의 일원	독립적이며 절반이상
본국과의 관계	본국과 단절	본국과 지속적인 소통
정부의 통제	약함	강함

자료: The New York Times, Global Migration: A World Ever More on the Move, June 26, 2010.

- 이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본국과 이들이 물리는 외국 모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큰 변화 불가피
-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비교적 유사한 문화권의 선진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반화
-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이주자들의 본국과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그들의 정체성은 주류문화에 덜 동화(同化)될 수밖에 없고 선진지역의 다문화화가 가속화되면서 **문명출동현상**이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발생
- 젊고 능력 있는 이주자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본국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 종속화**를 경험
- 외국으로부터 이주자 유입은 선진지역 한계산업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꼭 필요한 단순 서비스업 부문에서 본국인 노동인력을 구축하는 기능을 하여 **산업과 노동인력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함**
- 많은 여성인력들이 본국의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단독으로 이주함에 따라 본국에서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그 만큼 **가족 해체**가 빠르게 진행

- 합법적인 대량이민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불법이주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으며 출생증명이 없고 국적이 불분명한 **국제 떠돌이들이** 대규모로 등장
 - 외국인 노동인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재정과 복지에서 이들의 기여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공정한 대우 주장이 증가
 - 이주자와 본국과의 확고한 연결고리는 본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민간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시도가 증가
- (시사점) **출산율저하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인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 **단순 기능직보다는 고학력 고생산성의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을 유도**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또는 저효율산업에서 고효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
 -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
 -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공간이나 매체를 마련
 - **외국인 인력의 재정과 복지에 대한 공평한 기여와 혜택방법 강구**
 -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장차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입된 외국인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제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세계의 정치경제적인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육성해오던 지역전문가를 이주한 외국인과의 본국 간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양성

산업전략본부 예상한(02-2072-6232)

5. 네오 시민 혁명

○ (의미)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가상 인격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관계를 형성한 시민들은 정부, 기업으로부터 권력을 쟁취

- 17세기와 21세기 시민혁명의 차이 : 네오 시민혁명은 정보를 가진 시민들에 의한 관계 형성 욕구와 탈(脫)국경화된 가상 사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생
 - 근대 시민혁명은 절대 권력을 지닌 봉건 세력이 자본 축적을 통해 세력이 커진 시민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
 - 이에 비해 21세기의 네오 시민혁명은 정보 수집과 생산 능력을 갖춘 대중들이 공간적 제약을 넘나드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발생
 -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 권력이 봉건 세력에서 시민으로 이동하는 자유주의가 정착되고 시민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확산
 - 한편 네오 시민혁명은 국적, 민족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가상의 인격이 활동하는 가상 사회를 정착시킴

< 근대 시민혁명(부르주와 혁명)과 네오 시민혁명 >

	시 기	배 경	계 기	결 과
근대 시민혁명	17세기~	시민의 자본 축적	경제활동 탄압 (경제적 욕구)	권력 이동(봉건세력→시민) - 자유주의 정착 - 자본주의 확산
네오 시민혁명	21세기~	대중의 정보 축적	관계 형성의 기회 (사회관계의 욕구)	권력 이동(정부·기업→시민) - 탈(脫)국경화 - 가상 사회의 정착

자료 : 정달현, 「자유주의의 작동 양식과 이론의 경향」, 200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2009,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배경) 무선 인터넷 이용의 증가 : 지난 10년간 6배 증가한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시 2.5배 증가¹⁰⁾
 - 데이터 포터블리티¹¹⁾ : 2010년 20억 명 내외인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20년에는 50억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지구인의 반이 모바일 기기를 보유¹²⁾
- (계기) 공간을 초월한 소셜 미디어 : 인터넷의 무선화와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 힘입어 소셜 미디어 역시 공간적 제약을 넘어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¹³⁾

10) Internet World Stats, 2010.

11) Data Portability, 野村綜合研究所, 2008.

12) m Trends, 2010.

-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 : 200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한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 이용의 주요 행위로 자리 잡고 있음
- **공간적 제약의 약화** : 모바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지구인은 2007년 8천 2백만 명에서 2012년에는 8억 3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¹⁴⁾
- **(결과) 권력 이동** : 과거 시민혁명을 통해 권력이 봉건세력에서 시민으로 이동했듯이 네오 시민혁명을 통해 정부, 기업의 권력이 시민으로 이동
- **대중 정보 수준의 향상** : 다기능 네트워크 기기의 증가로 정보의 생성 능력까지 갖춘 대중들 사이에 정보 교류가 증가하면서 정보 수준 역시 향상
- **권력을 얻는 시민들** :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권력의 중심이 시민들로 넘어가게 됨
- **(가상 시민의 탄생)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개인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 탄생했다면 네오 시민혁명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권리를 대신하는 가상 인격을 가진 시민이 탄생**
 - **가상 인격의 등장** : 현실 공간의 인격이 생성·통제하는 가상 공간의 인격이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됨
 - **근대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인격** : 개인적인 활동이나 의사 표현이 보장된 자율적인 권리를 가진 인격
 - **네오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인격** : 소셜 미디어의 아이디는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아닌 가상 공간의 또 다른 나, 이름을 의미하는 새로운 인격
 - **새로운 인격이 만드는 新문화** :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것은 물론 급속한 변화,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특성¹⁵⁾이 반영된 가상 세계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
 - **근대 시민의 문화** : 시민들 사이에 개인주의 문화가 등장하는 한편 우리와 남을 분리하는 경계의 기준으로 민족주의가 확산
 - **가상 인격의 문화** : 가상의 인격¹⁶⁾들은 인터넷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도 다양한 국적, 민족, 문화를 가진 타인¹⁷⁾들과 느슨한 관계¹⁸⁾를 맺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

13)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2009.

14) 情報通信總合研究所, 2008.

15) 노기영, *뉴미디어의 의사소통성과 쌍방향성*, 2008.

16) 인터넷의 개인은 직접 대면이 없고 사실 확인의 부담이 적은 인터넷 게시판, 온라인 게임, 소셜 미디어 등에서 현실의 자신보다 미화시키기도 하고 감정적,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실제 인격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음.

17) 국적과 민족에 제한받지 않고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특징에는 다양성과 경계의 불명확성이 있음.

18)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는 약하지만 많은 수의 연결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보다 크게 유인함,

-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네오 시민혁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노동화, 新개인주의, 소비자 중심 시장의 완성과 같은 변화들이 발생
- (정치적 변화) 新개인주의가 만드는 정치적 이합집산 : 정부로부터 권력을 얻은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 범위가 넓어지고 참여도 확대되는 한편 다양한 모임이 쉽게 결성되고 흩어지는 현상이 반복
 - (근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확산된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 (21세기) 新개인주의¹⁹⁾와 정치 참여 : 네오 시민혁명으로 확산된 新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시민들은 전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
 - (21세기) 이합집산의 연속 : 정치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이념을 중심으로 가뻗게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이 반복²⁰⁾
 - (사회적 변화) 정보 관련 활동의 변화 : 시민들은 권력 쟁취의 근거인 정보 획득과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정보 여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불신의 문화가 확산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을 노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 (근대) 과학적 정보 접근의 확산 :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정보를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정보 검증 행위가 확산
 - (21세기) 정보 증가와 신뢰의 양면 : 정보 교류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반면 정보 여과 행위²¹⁾와 불신 문화 역시 확산
 - (21세기) 커뮤니케이션의 노동화 : 오늘날 이메일 확인이 업무 중 하나이듯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과 정보 교류 역시 놀이에서 노동으로 변화
 - (경제적 변화) 가상 상품 시장과 소비자 중심 시장 : 가상 공간용 상품 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는 한편 시장이 기업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

서아영, 신경식, 「IT 활용이 지식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2008.

- 19) Soft individualism, 개인주의적 성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에 대한 일부의 책임과 참여를 수반, Norbert Bolz, *Weltkommunikation*, 2009.
- 20) 하나의 구심점으로 빠르게 집중되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특성(Sinan Aral, 「From Conversations to Conversions」, 2010)과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특징인 느슨하지만 넓은 범위의 관계 형성이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침.
- 21) 정보의 증가에는 비교 가능한 다른 정보의 증가 역시 포함되며, 현실 공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만큼 개인 및 집단 각자가 신뢰하는 일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짐.

- (근대) **현실 상품의 사유화** : 근대 시민혁명은 현실 공간의 상품이 유통되는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고 재산의 개인적 소유에 대한 열망을 강화
 - (21세기) **가상 상품 시장의 부상** : 가상 공간에서만 활용되는 상품²²⁾의 종류 및 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상 상품 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
 - (21세기) **소비자 중심 시장의 완성** : 소비자의 기업과 상품 가치에 대한 비교 기회가 증대되면서 상품의 생산 및 공급 과정은 물론 가격 정책에까지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대
- (시사점) **네오 시민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력, 인프라 및 제도, 정보 관리 능력, 인간의 의미에 대한 성찰 등이 요구됨**
- **다양성의 존중** : 내가 잘 모르거나 나와 다른 문화, 새롭게 생겨나는 가상 공간의 문화 등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프라의 마련** : 가상 공간의 인프라²³⁾ 조성은 물론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변화에 관련된 제도 마련의 논의가 시작되어야함
 - **정보 관리 능력의 제고** : 빠르게 증가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함
 - **인간의 의미를 지키기 위한 노력** : 인간이 정보로 대체되는 상황²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의 의미에 대한 꾸준한 성찰과 교육이 요구됨

산업전략본부 김필수(02-2072-6238)

22) 현재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 음악, 꾸미기 등이 가상 상품의 사례로서 앞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23)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가상 공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들이 대표적 사례임.

24) 가상 인격의 아이디어가 가상 공간에서의 또 다른 나를 의미하는 것처럼 '현실 공간에서 나의 이름이 정보의 항목 중 하나로 변질'되는 비인간화를 의미함.

6. 한반도 르네상스

○ (의미) 2020년대에 이르러 한반도가 남북한 평화협정 및 경제 통합 등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안정을 이루면서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

- 2020년에는 남북한 경제가 통합될 경우, 국토 면적은 220,258km로 세계 84위, GDP 2조 770억 달러로 세계 12위, 인구 7,500만 명으로 세계 17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

< 남북한 경제 통합의 세계적 위상 >

	2010년			2020년	
	국토 면적 (km)	GDP (십억 달러)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인구 (백만 명)
남북한 통합	220,258 (84위)	1,402 (12위)	71 (19위)	2,077 (12위)	75 (17위)
남한	99,720 (108위)	1,362 (12위)	49 (26위)	1,964	49
북한	120,538 (98위)	40 (95위)	23 (50위)	113	26

자료 : 2010년 자료는 CIA, The World Factbook, 2010 참고, 2020년 자료는 Goldman Sachs study of N11 nations, Global Economics Paper No: 153, March 28, 2007. "The N-11: More Than an Acronym" 참고.

○ (내용) 2020년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 중심지로 부상하여, 동북아 성장 동력의 진원지로 자리매김 될 전망

① 동북아 평화 중심지

- 동북아의 화약고에서 평화 중심지로 변모 :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은 동북아 전역의 외교·안보환경을 개선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심부에 남아있는 지리적인 단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일 및 동북아-동남아 간의 교량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역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갈등 해소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

- 북한, 몽고 등 경제적 후발 주자와 일본, 중국 등 선발 주자 간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추진하는 중심 지역으로 부상

② 동북아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

- **해운·철도·도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 : 중국의 물동량과 한국의 지리적 입지, 일본의 해운 수요 및 역외 운송 네트워크 등 각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조화
 -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극동항구들도 포함시켜,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연계한 환동해권 해운네트워크를 구축
 - 특히, 경의선과 동해 북부선,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완성되어 이는 중국횡단철도(TCR)와 몽골횡단철도(TMG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
 - 또한, 400km 서울-신의주간 新경의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어 아시안 하이웨이로 연결되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중심지** : 동북아의 핵심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남-북-러 3자간 전력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의 다자간 에너지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 수행

③ 문화·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 **접경지역 관광 자원 개발** : 남북간 접경지역인 DMZ 개발을 필두로 한 동북아 국가 간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미개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환동해 및 환황해 연안의 크루즈관광 노선 개발 등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숙박 등 서비스산업 개발의 중추적 역할 수행
- **환경협력의 중간자 역할** : 산성비, 황사 등 월경성 대기오염과 공유해역의 해양오염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동북아 환경 협력의 중간자 역할 수행

④ 남북 통합의 시너지 효과

- **경제적 효과** : 남한은 섬나라에서 탈피하여 대륙경제권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
 · 골드만삭스는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경제 통합만 이루어지면, 2020년 남북한의 1인당 GDP는 2만 8천 달러, 남한 1인당 GDP는 4만 달러, 북한의 1인당 GDP는 4,000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남북한 경제 통합 효과 >

	1인당 GDP(단위 : 천 달러)			인구(단위 : 백만 명)		
	남북한 통합	남한	북한	남북한 통합	남한	북한
2010	13	19	1	73	49	24
2015	22	32	2	74	49	25
2020	28	40	4	75	49	26

자료 :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참고.

- **사회적 효과** : 남북간 자유 왕래가 실현되고, 남남북녀 커플이 탄생하는 등 자유 연애 시대도 도래
 · 개성공단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경제지대와 복합자유신도시로 개발, 금강산 관광특구는 연 15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과 과제) 통일 비용 대비 통일 편익이 더욱 큰 것을 고려할 때,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도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
- 통일을 남한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경제연구본부 이해정(02-2072-6222)

7. 지역 기축통화(Regional key Currency)

○ (의미) 국제금융시스템이 미 달러화의 단일 기축통화²⁵⁾ 체계(Unipolar system)에서 달러, 유로, 엔, 위안(또는 아시아 공동통화) 등의 주요 통화가 역내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극화된 기축통화체계(Multipolar system)로 전환되는 것을 말함

- 미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주요국 간 통화전쟁 지속되면서 각 지역의 대표 통화들이 역내 기축통화로 위상이 강화됨
- 지역 기축통화 시대는 미 달러화 약세,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증대 및 역내 경제통합 활성화에 기인함
 - **미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의 쌍둥이 적자 지속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과 통화전쟁 등으로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 현 IMF하의 국제금융시스템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 통화전쟁 등 복합적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의 필요성이 제기
 - **지역경제통합 심화에 따른 지역내 기축통화 가능성은 고조:** 전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지역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요 경제 블록간 역내 교역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유로화, 위안화 등의 통화가 지역내 기축통화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기축통화의 역사>

구 분	시기	통화
기축통화의 역사	~ 18세기	금
	18세기~1차 세계대전 이전	금본위하의 파운드화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금환본위제 하의 미 달러화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신용 기반의 미 달러화
	1985년 플라자합의	미 달러화 가치 하락
	2010년대	주요 국가간 통화전쟁 본격화 되고 기축통화 다변화
	2020년	지역 기축통화 시대 개막

25) 국제 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통화를 일컬음.

○ (내용) 지역 기축통화 시대는 달러 위상 약화로 결제통화 다변화, 신규 공동 통화지역이 형성되면서 주요 통화간 역내 세력 확대로 과도기적 세력균형이 형성되고, 역내교역 활성화 및 역외 보호주의 심화 등으로 연결

- (글로벌 준비 및 결제통화 다변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지역 기축통화 시대로 발전되면서 국제결제통화가 미 달러 중심에서 본격적으로 다변화될 것임

-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거래 비중은 2001년 89.9%(합계 200%)에서 2010년 84.9%로 5%p 낮아졌고, 향후 국가간 환율 공조 과정에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의 구성비도 2000년 71.1%에서 2010년 62.1로 9.0%p 낮아진 반면, 유로, 파운드, 기타 통화의 비중은 증가
- 한편, 최근 중국이 무역거래 결제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위안화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 위안화 표시 대외원조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통해 아시아권 통화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임

<주요 통화 국제금융시장 거래 비중>

	2001	2004	2007	2010
달러	89.9	88.0	85.6	84.9
유로	37.9	37.4	37.0	39.1
엔화	23.5	20.8	17.2	19.0
파운드	13.0	16.5	14.9	12.9
기타	35.7	37.3	45.2	44.2

자료 : BIS, 2010년 4월 기준임.

- 주: 1) 2010년 4월 1일 거래 기준임
- 2) 거래양방의 합산 비중으로 합계는 200%임.

< 주요 통화의 외환보유액 구성비 >

	2000	2005	2007	2010
달러	71.1	66.9	64.1	62.1
유로	18.3	24.1	26.3	26.5
엔화	6.1	3.6	2.9	3.3
파운드	2.8	3.6	4.7	4.2
기타	1.5	1.7	1.8	3.8

자료 : IMF.

- 주 : 1) 2010년은 2/4분기 기준임.
- 2)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구성비를 보고하는 합산액의 주요통화별 비중임.

- (신규 공동통화지역 형성) 유로존 이외에 중동, 아프리카에서 신규 공동통화 지역이 형성되고 중남미, 아시아에서는 지역 통화 결제 비중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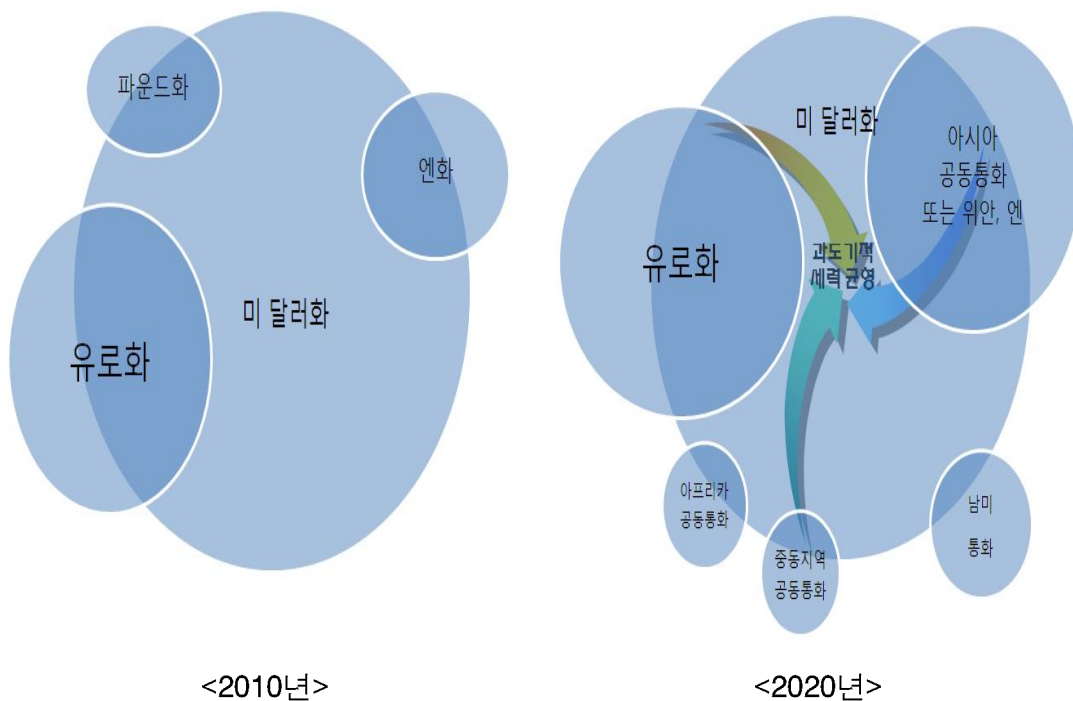
- 걸프지역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은 2008년 공동시장을 형성하였고, 석유 수출가격 표시와 결제를 위한 단일 통화지역을 형성

- 아프리카도 서부, 남부 공동통화 지역이 형성된 가운데 2020년대 이후에는 아프리카 전체를 포괄하는 통화동맹의 창설이 준비
- 중남미 국가들도 무역거래 결제과정에서 환 손실 축소와 환율안정 도모를 위해 역내 교역에서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 활용을 확대
- 아시아 지역도 세계경제에의 영향력 확대와 FTA 체결에 따른 역내 교역 증대로 위안, 엔화 결제가 확대되고 아시아 단일통화(ACU)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전

- (과도기적 세력 균형 형성) 글로벌 결제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은 유지될 것이나 지역 기축통화의 역내 비중 확대로 주요 통화 간 과도기적 세력 균형이 형성될 것임

- 미국의 세계경제 비중이 2000년 31%에서 2009년 24%로 축소되었고, 세계 외환보유액 및 외환시장 거래 비중도 축소되고 있으나 이미 세계적으로 달러가 편리하게 사용 중인 만큼 다른 통화로 쉽게 대체되진 않을 것임
- 반면, 유로존이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의 통합이 가속화되어 공동통화 또는 공동 결제통화가 실현된다면 이 두지역의 공동 통화가 미 달러화의 대체통화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

< 기축통화 시대의 변화 >



- (지역 경제블록의 영향력 확대) 역내 경제블록 강화로 각 지역별 경제 및 대외규모가 확대되어 영향력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 신규 공동통화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이 유로존의 60% 수준으로 높아지고 경제와 대외거래 규모가 확대된다면 이들 지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
 - 특히, 전세계 GDP에서 한·중·일 비중은 2000년대 17.6%에서 2015년 20.7%(IMF 전망치), 2020년 23.6%(IMF 전망치의 평균 성장률로 추정)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유로존·아시아의 3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 (역외 보호주의는 심화) 역내 국가간 또는 우방국 중심의 지원 강화로 역외국은 배척되고 글로벌 재균형 과정에서 무역·금융 보호주의 등이 심화
 - 미국, 유럽, 중국의 패권 전쟁이 역내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강력한 경제블록’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지배력에서 퇴보
 - 한편, 주요국 간 통화 가치를 둘러싼 보복관세 도입, 글로벌 공조, 보호주의 무역 및 자원의 무기화 등이 확산되어 역외 국가에 대한 보호주의는 강화
- (경제위기 전염성 약화 효과) 지역 기축통화의 발전은 국내·외 결제 통화 유연성(Flexibility)을 확대시켜 역내 국가간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어 역외 금융위기의 역내 전염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됨
 - 각 경제블록을 대표하는 지역통화들이 역내 교역 및 금융 서비스의 결제율을 확대시키고, 지역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각 경제 블록의 통화 안정성이 확대되고 변동성도 축소될 수 있음

○ 시사점

- 지역 기축통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화 위주의 국내 외환 보유 형태를 보다 다변화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
 - 국내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미 달러화 중심에서 대두하는 지역통화 비중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외시장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도 수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역내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중·일이 공동으로 노력
 - 특히, 아시아공동통화단위(ACU)와 같은 공동통화바스켓의 형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조호정(02-2072-6217)

8. 마이 로봇 시대

○ (의미) 지금까지의 기계가 가사를 '보조'해주는데 그쳤다면 2020년에는 자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가사형 마이로봇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됨

- 가정용 개인서비스 기기의 도약 : 청소기와 같은 기존의 가정서비스 기기는 일정부분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나 2020년에는 자율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이 등장함에 따라 많은 가정이 가사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됨
 - 기술 발전에 따라 청소기, 세탁기 등 가사 보조 수단이 등장하면서 가사 노동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족구성원의 가사노동 부담이 감소해왔음
 - 하지만 상기 기기들은 자율적으로 가사를 담당하지는 못하며 반드시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계가 있음
 - 미래에는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요하거나 아예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적 가정서비스 로봇인 마이로봇이 등장하여 가사 보조 및 가족 구성원을 케어해줄 것으로 예상

< 가정 서비스 기기의 진화 >

	과거(1960년대 후반)	현재	미래
단계	가사 보조 수단으로서의 수동적 기기의 등장	인지(입력)되어 있는 특정 목적을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기의 등장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사 보조 등이 가능한 능동적 가사기기의 등장
기기	청소기, 세탁기, 제초기 등	로봇형 청소기, 유아용 애완로봇 등	청소 로봇, 노인재활 도우미로봇 등 자율형 마이로봇
의의	가족구성원의 가사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	가사서비스 기기의 패러다임 과도기	기기가 가족구성원을 대체

○ (내용) 사회구조 변화 및 기술발달로 2020년에는 마이로봇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국가간 로봇산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가사·여가 등 가정용 개인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이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IT·BT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

- **수요적 측면** : 핵가족화·고령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경비, 가사, 여가, 노인 지원 등을 수행하는 마이로봇의 수요가 확대될 것
 -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 가족구성원의 수가 줄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확대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어 따라 가사 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
 - **고령화** : 많은 선진국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 노인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 **감성적 요구 증대** : 시간적 여유와 고독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또는 그 대체 수단이 필요함

- **공급(기술)적 측면** : 빠르게 발전하는 각종 생화학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2020년에는 스스로 보고, 행동하며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전망
 - 현재의 로봇은 협동 및 진화기술을 갖춘 에이전트(agent : 동적인 환경조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스템)로 음성인식이나 초보적 감성 표현이나 시각정보 처리, 자율 이동 및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인간과의 관계형성이나 자율적 의사판단 등은 어려운 수준임
 - 한편, 복합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능, 인터페이스, 감지능력, 제어 등의 기술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이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2020년에는 독립적 학습능력을 갖추고 융합센서 및 생체 모방형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러운 환경 대응이 가능한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개인서비스용 로봇의 미래 기술발전 단계 전망 >

	2010	2015	2020
지능	다중 에이전트 협동 및 진화기술	인간사고 모방학습 및 추론기술	매체 혹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독립적 학습능력
휴먼·로봇 인터페이스	초보적 감성인식·표현	감성인식·표현	감성인식 및 표현의 다양화
감지	시각정보처리, 촉각정보처리, 후각정보처리	센서 융합 및 특정 환경 이해	센서 융합 및 불특정 다수의 이해
제어	자율 이동·보행	네트워크 통신 기반의 실시간 원격 제어	네트워크 통신 기반의 실시간 원격 통합 제어
센서·구동 메커니즘	시각·후각·촉각 센서, 고효율밀도 구동기	생체 모방형 메커니즘	향상된 생체 모방형 메커니즘
시스템 통합	로봇운영시스템·미들웨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계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계통합시스템

자료: 산업연구원, *로봇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2007.

- **2020년의 마이로봇** : 이 같은 기술발전예 따라 2020년에는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각종 가사 및 건강 지원, 여가와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로봇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
 - **가사 지원** : 기본적인 청소 능력 외에도 정원 등 실외 관리, 심부름 및 일부 정리정돈까지 마이로봇이 담당하게 될 것
 - **건강 관리** : 매일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그 내용을 전담의에게 보내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족에게 알리는 등의 기능을 수행
 - **노약자 보조** : 상시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에게 마이로봇은 보행 등 일상 수발을 보조하고 치매 예방이나 근력강화 훈련을 돕게 될 것
 - **여가 보조** : 성인에게는 바둑, 장기, 개인 골프 등 홈스포츠키의 파트너로서, 어린이에게는 애완전 등을 대신하는 친구로도 기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교육 보조** :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노래부르기, 맞춤법 등을 가르치고 보행 훈련 등을 수행
 - **경비·출퇴근 등 복합업무 지원** : 2020년에는 마이로봇이 가족구성원의 출퇴근을 관리해주고 어린이의 통학 보조, 실시간 가정 경비 및 위급상황 알림 등 집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 **마이로봇의 등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주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적 영향** : 마이로봇 산업의 발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 확장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산업적 측면** : 자체적인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디지털 홈과 연계되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됨
 - **기술적 측면** : 마이로봇에 요구되는 각종 생화학 및 정보통신 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메커니즘, 제어, 환경 인식 등 지능형 신기술에 대한 국가투자의 효율성이 증대됨
 - **사회·문화적 측면** : 마이로봇이 고령화·핵가족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국민 복지 서비스 등을 수행하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됨

- **일상생활의 변화** : 인간과 로봇간 관계 형성이 일상화되고 새로운 사회격차 발생 및 인적자원의 대대적인 재교육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예상됨

- **인간과 로봇간 일상적 관계 형성** : 미래에는 인간과 로봇간 친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우정·사랑 등의 감정을 느끼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음
 - **새로운 사회격차발생** : 인터넷이 정보격차를 야기했듯 마이로봇의 등장은 로봇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문화적 격차 및 차별 의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됨
 - **인적자원의 재교육** :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부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가사 노동 등 수요가 급감하고 대신 로봇의 설계 및 유지 관련 서비스 분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적자원의 재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마이로봇 산업이 차세대 ‘스타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에 따라 각국 정부가 로봇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어 마이로봇 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산업 규모와 전망** : 2010년 개인서비스 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80억 달러이며 2020년에는 2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개인서비스 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79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13.5%씩 증가하여 약 2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개인서비스 로봇 산업은 2010년 약 2,000억원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23.4% 성장하여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개인서비스 로봇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청소용 로봇의 급격한 성장세에 힘입어 개인서비스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세계 및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산업의 시장전망 >

(단위: 백만달러, %)

	2010	2015	2020	2010~2020 연평균증가율
세계	7,938	19,800	28,162	13.5
국내	240	890	1,970	23.4

자료: 산업연구원, *로봇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2007.

- **각국 정부의 지원 현황** : 마이로봇 등 지능형 개인서비스 로봇 산업은 자동차 산업 이상의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스타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국 정부가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세계 1위의 로봇 생산국이자 사용국인 일본은 소니와 혼다·NEC·도시 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용 서비스 로봇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음
- 유럽은 범유럽 차원에서 기술개발 추진, IT기술 접목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재활·의료 등 서비스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기계 상호작용 장치의 개발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과 사회적·심리적 영향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음
- 한국 정부도 2005년 2020년까지 1가구 1로봇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08.3월),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수립('09.4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범('10.7월)에 이어 12월에는 「서비스로봇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로봇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사점)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산업 선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마이로봇의 진흥을 위한 국내 법·제도 등 로봇산업의 인프라 정비 및 사회적 혼란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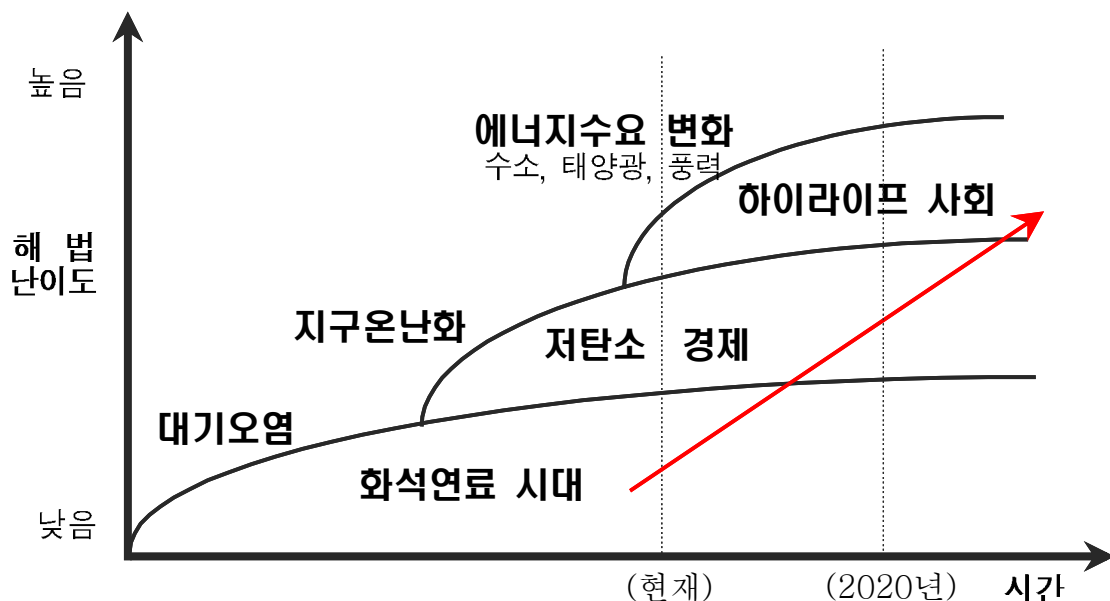
- 향후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로봇산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소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중소기업 위주의 로봇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봇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
 - 로봇산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표준화를 주도하고 공용 평가시험 및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제도 등을 정비
 - 로봇 산업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국가적 연구역량 집중,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
- 마이로봇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소비자 니즈 기반 제품 개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로 상용화에 주력해야 함
 - 사용자 니즈 분석을 토대로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 규격을 정의하고 제품개발, 품질 및 원가절감, 디자인 브랜드화를 주도
 - 더불어 정부차원에서의 공공구매 확대, 국내외 유통망 확충, 시범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로봇 수요를 촉발하여 조기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

산업전략본부 전해영(02-2072-6241)

9. '하이라이프'(Hy-Life) 사회

- (의미)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GHG)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패턴이 정착되고, 친환경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보편화되며, 수소연료전지(H₂ FuelCell)를 갖춘 자동차와 주택이 상용화된 '하이라이프' 사회가 시작됨
- '하이라이프' 사회의 정의: 수소(Hydrogen)기반의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주택, 빌딩, 공장, 승용차, 버스 등이 생활에 널리 보급되는 사회
 - 수소에너지 활용도 제고 :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Hydrogen)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기술이 널리 보급되며,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생활필수품과 자동차, 주택, 빌딩 등이 보편화됨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의 생산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가 보편화되고,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됨
- '하이라이프' 사회의 경과 : 화석연료 시대 ⇨ 저탄소 경제 ⇨ 하이라이프 사회
 - 화석연료 시대(fossil fuel economy) :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 원으로 하여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지구온난화를 유발함
 - 저탄소 경제(low-carbon economy) :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려는 경제로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단계가 '탄소제로 경제'

< 하이라이프(Hy-Life) 사회의 도래 >



○ (내용) 2020년에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된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패턴이 정착되고 탄소제로주택(ZEH)²⁶이 보편화되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대중화와 스마트 그리드의 생활화도 가능해짐

- 수소(Hydrogen)기반의 가정용 연료전지 활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1)탄소제로주택이 보편화되고, (2)피스톤과 엔진룸 대신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자동차의 대중화, (3)전국에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이 생활화되는 시대가 열림

(1) 탄소제로주택(ZEH) 보편화

- 주택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2020년경에는 대부분의 주택과 업무용 빌딩이 탄소제로주택(ZEH)·탄소제로빌딩(ZEB)으로 교체될 예정
 - 2006년 영국 정부는 '2016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을 탄소제로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모든 신축 비주택 건축물을 탄소제로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 일본은 2015년부터 ZEH의 보급을 시작하여 2030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ZEH化, 2050년부터 모든 주택의 ZEH化라는 목표를 제시
 - 美國 시애틀市는 5만 평방피트를 넘는 모든 건물의 신축 또는 재건축時에 친환경건축인증(LEED)²⁷의 실버등급 이상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

(2) 수소 연료전지車²⁸ 대중화

-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충전 자동차 등 친환경 그린카(Green Car)²⁹의 범람 속에서 수소 연료전지에 기반한 자동차(HFCEV)가 대세를 이루면서 대중화됨

26) '탄소제로주택(Zero Emission House, 이하 ZEH)'이란 주택의 연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또는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純제로 또는 거의 제로가 되는 주택으로서, 대용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가정용 연료전지·고효율조명·에너지절약 가전 등 최첨단 에너지·환경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주택임.

27)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의 그린빌딩협의회가 환경 평가기술을 토대로 1998년 제정하여 친환경 건물의 디자인·건축·운영의 척도로 사용하는 인증시스템으로서,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인증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28)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를 장착하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되는 자동차

29) '그린카'란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며, 전기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車(PHEV), 하이브리드車 (HEV), 수소연료전지車(HFCEV)를 모두 포함

-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가솔린차는 현재의 6천만 대 수준에서 정체되지만, 그린카는 현재 1천만 대에서 2020년 3천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연평균 11.3% 성장할 것으로 예상³⁰⁾됨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무게를 줄이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친환경 그린카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注油所 대신 수소충전소(H-Station)** : 2020년경에는 거리에 주유소(Gas Station)는 줄고 수소 연료전지車에 수소를 주입해주는 수소충전소(Hydrogen Station)가 널리 보급될 전망
 -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전기車 양산이 시작되고, 2020년경에 수소연료전지車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인바, 길거리의 주유소(注油所, Gas Station)도 수소충전소(Hydrogen Station)로 상당수 대체될 것임
- **수소 충전설비 갖춘 아파트 인기** : 2020년경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 주차장에 수소충전설비를 갖추면 인기를 끌 예정.
 -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설비된 수소충전기에 꽂아 충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면 빌딩 주차장 수소충전기로 충전하는 패턴이 정착됨
 - 이처럼 주차장에 수소연료전지車 충전설비를 갖춘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끌고, 주차장 필수 설비 가운데 하나로 수소충전기가 자리잡을 전망

(3)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생활화

- **전력과 IT의 결합으로 단방향-집중형 전력망을 양방향-분산형 전력망(Smart grid)으로 전환하여,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현지에 저장해 놓고, 요즘이 저렴한 심야시간에 가전제품을 사용·충전하는 생활패턴이 정착됨**
 -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유럽, 일본 등에서 스마트 그리드에 기초한 시범마을 구축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우리는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소비자측 지능화,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 지능화를 완료할 계획

30) 차 종류별 시장전망은 (그린카) 1,071('10년) → 3,132만대('20년), (가솔린차) 5,966('10년) → 6,065만대('20년) (녹색성장위원회 '그린카 로드맵' 관련 보도자료, 2010.)

(4) '하이라이프'(Hy-Life)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각국의 경쟁 치열

- 수소(Hydrogen)기반의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주택, 빌딩, 공장, 승용차, 버스 등이 생활에 널리 보급되는 '하이라이프'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 日本은 신일본석유와 후쿠오카縣 및 세이부가스에너지 3者 공동으로 일본 후쿠오카縣 마에바루市의 미나카제다이 단지·미사키가오카 단지 150세대에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를 집중 설치하는 세계 최대의 수소타운을 건설 중
 - 캐나다는 1978년부터 연료전지 R&D에 매달려 왔으며, 현재 천연가스와 바이오매스 원자력 수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간 300만톤의 수소를 생산한 뒤 오일샌드 정제, 비료용 암모니아 생산 등에 활용
 - 우리나라는 포항에 대규모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면 2018년 세계시장(600억 달러)의 38%(229억 달러)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³¹⁾됨
- (시사점) '하이라이프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협약의 준수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착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
 - '하이라이프'(Hy-Life) 사회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지원
 - 정부 차원에서 수소배송 인프라 구축, 수소스테이션(H-Station) 설치, 주차장 수소충전설비 시설, 가정용 연료전지 시설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
 - '탄소제로주택'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관련된 성능의 향상 (주택의 단열성능, 난방·급탕 등 주택설비의 에너지절감 성능)과 탄소배출기준의 달성을 지원함
 - '수소연료전지車'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으로서 연료전지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비를 높이는 기술(친환경 주행기술), 전지용량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기술, 소비자의 라이프사이클 혁신 등이 요구됨

경제연구본부 김동열(02-2072-6213)

3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11.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발표자료)

10. 페슬로(Faslow) 비즈니스

- (의미) 2020년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스피드'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겠지만, 무제한적으로 달려가는 자본주의 생활 속도에 대한 염증으로 '느림'이나 '평균'을 열망하는 흐름 또한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됨. '빠르게'와 '느리게'가 공존하는 '페슬로'(faslow: fast+slow) 트렌드가 보편화 될 것이며, 스피드 강요 사회에서 인간의 느낌, 평균에 대한 욕구를 겨냥한 페슬로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것임
- 스피드가 경쟁력 : 2020년에도 스피드를 추구하는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임
 - 속도라는 변수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짐
 - 페이지가 열리는 데 5초 이상 걸리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매출 하락 30%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애인에게 연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타이핑하는 시간이 아까워 단어의 철자를 생략하는 세상임
- '느림'에 대한 열망 : '속도의 테러'에 대한 역 트렌드(counter trend)로서 '슬로 라이프'를 동경하는 사회문화적 저변이 확고해질 것임
 - 속도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불안, 인내력 결핍, 집중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면서 '느림'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는 느림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성장
 - 가령 산업혁명 당시 일자리를 뺏어간 기계를 때려 부숴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처럼, 속도사회에서 다급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스피드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감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현대판 러다이트'가 나타날 수도 있음
 - 독일의 다운시프팅협회의 장기는 '100미터를 1시간에 달리는 것'이라 함
 - 저속을 즐기는 다운시프팅(downshifting) 운동이 현실 도피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것이며, 슬로비(slobbie)³²들이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임

32) 슬로비(slobbie)란 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의 약자로 '천천히 하지만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 **보헤미안적³³⁾ 감성을 지닌 계층의 부상** : 자본주의적 속도와 효율성에 일정한 정도 저항하고 자유와 창조성을 추구하는 ‘보헤미안’적 감성의 계층들이 사회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로서 보보스(Bobos)³⁴⁾, 디지털 보헤미안(Digital Bohemian)³⁵⁾ 등이 부각
 -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속도와 효율성,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영혼과 창조적 기질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키며, 향후 패슬로 트렌드를 대표하는 계층이 될 것임

○ (내용) **현재에도 빠름의 주류 문화 속에서 느림을 주제로 한 패슬로 비즈니스가 자기 영역을 굳혀나가고 있음**

- **속도전 속의 슬로 라이프를 지원하다** : 템플 스테이 등 이미 느림의 미학을 즐기도록 하는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더욱 발전될 전망
 - **고속철도 위의 명상 비즈니스** : 시속 500km의 고속철도로 출장을 가면서 객차 내 설치된 “30분 명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함
 - **파워냅(power nap)³⁶⁾** : 학교나 회사에 수면실을 설치해 15분 정도 깊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

33) 보헤미안의 어원은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에는 일찍부터 집시들이 많이 살아 이미 15세기경에 프랑스인은 이런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 부름. 이 지역이 독일 제국에 편입되면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은 프랑스 등 서유럽으로 이주하거나 방랑생활을 함.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 배우, 문인, 지식인들을 일컫는 말이 됨. 물론 그들의 생활은 대개 가난했으므로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멸시당하거나 그들과 다른 부류로 간주되곤 했음

34) 보보스(Bobos)란 ‘부르조아 보헤미안(Bourgeois Bohemian)’의 첫 두 글자를 따서 만든 말로, 부르조아의 야망과 성공, 그리고 보헤미안의 창조성과 이상을 함께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계층. 이들은 한편으로는 성공을 거두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반항적이고 비정통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발전시킴

35) 디지털 보헤미안(Digital Bohemian)이란 PC,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내려준 축복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지만 자유로운 영혼과 창조적 기질 등 보헤미안적 기질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폭을 확대하는 계층

36) 지난 2005년 미국 최대 복합 쇼핑몰로 불리는 미니애폴리스의 ‘몰 오브 아메리카’에 쇼핑에 지친 손님들을 위한 ‘낮잠 센터’가 들어 선 것이 화제가 된 바 있음.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파워냅 슬립 센터스社は 지명인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 낮잠(nap)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미니냅폴리스(MinneNAPolis)’라는 간판을 단 간이 수면시설을 설치

- **나만의 공간(MySpace) 비즈니스** : 하루짜리 휴일을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 집 안에 영화·음악 감상실이나 서재 등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리어 비즈니스가 성업할 것임. 이 공간에서는 만화를 보고, 공상을 하고 낮잠을 자는 등 누구도 느낌의 생활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임
- **짧거나 의미 있는 여행을 디자인하다** : 급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짧은 여행 상품, 또는 짧더라도 좀 더 깊이 있고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갑 열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
 - **시티 트립(city trip)** : 1박 2일의 자유 시간조차 허락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도시 도보여행은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음
 - **슬로 시티(slow city) 체험** :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 ‘느리게 사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 슬로시티 관광이 성업³⁷⁾
 - **볼런투어리즘(voluntouriam)** : 휴식이나 오락으로서의 여행이 아닌 자원봉사와 같이 의미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발전. 유명한 휴양지나 세계적인 대도시에 가는 여행을 포기하고 멸종 동물 보호, 제3세계 빈민 구제 활동 등을 하는 여행이 관심을 끌 것임
 - **‘선의 여행’** : 여행지 한 곳을 들렀다 오는 ‘점의 여행’이 아니라 지점과 지점 사이의 길도 여행 목적지가 되는 ‘선의 여행’이 보편화될 것임. 이런 경우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이 선호되며, 느린 이동수단인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로드 트립’(road trip)이 관심을 끌 것임³⁸⁾
- **슬로푸드(slow food)를 빠르게 즐기도록 개발하다** : 슬로푸드 운동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데, 음식문화 역시 패슬로 트렌드를 반영해야 할 것임
 - 최근 조지 클루니의 광고로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더 하고 있는 네스프레소(Nespresso)가 좋은 예

37) 우리 나라에서도 슬로시티는 단연 인기. 담양군 창평면,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창평면 등 전남도 내 슬로시티 4곳은 슬로시티로 지정된 해인 2007년에 비해 관광객 수가 2배~14배 이상 늘어남. 이곳에서는 녹차 및 엿 만들기, 우마차 타기, 염전에서 일하기 등 ‘느린 삶’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인근의 자연친화적 오솔길(슬로길)을 걸으면서 ‘느림의 미학’도 즐길 수 있음

38)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대표적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등이 있음

- 신선하게 보관된 원두를 잘 볶아서 즉석에서 갈아서 커피를 만들어 먹으라 치면 커피는 대표적인 슬로푸드의 하나인데, 커피의 향과 풍미를 그대로 간직한 채 바쁜 도시인들이 30초 내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캡슐커피
 - 한 개의 캡슐로 한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특허된 알루미늄 캡슐로 날개 포장하여 커피 원료가 공기와 습기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산화를 차단하므로 커피 본래 맛과 향이 그대로 보존됨
 - 이외에도 약간의 조리만으로도 슬로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10분 슬로푸드'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며, '느리고 성실한 요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슬로푸드 멤버십 레스토랑도 성업 가능
- **'몰스킨 신드롬'(moleskin syndrome)을 이용하다** : 몰스킨 노트의 화려한 부활처럼, 속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기기들의 대세 속에서도 아날로그적 감성을 겨냥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을 것임
- '몰스킨 신드롬'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속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도 디지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복고풍의 메모수첩인 '몰스킨'이 인기를 끈 것에서 보듯이 디지털로의 빠른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마음 속에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함
 - 몰스킨은 디지털시대에 반역적인 '아날로그적 감성'을 건드리고 '창조적인 직업인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했던 노트'라는 점을 강조하여 성공한 제품으로서, 향후 '몰스킨 신드롬'을 겨냥한 제품들의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향수 브랜드'의 부활** : 익숙한 것에서 위안을 찾고, 어린 시절 애용했던 브랜드에서 편안함을 얻는 등 소위 향수 브랜드에서 모종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 할 것임
 - 어린 시절 유행했던 장난감, 과자, 영화, TV드라마 등 '리바이벌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여 추억의 브랜드가 다시 부활할 것임
 - 예를 들면, 태엽 시계가 다시 유행하며, 티볼리 라디오와 같이 단순성 디자인이 인기를 끌 것이며, 샤프보다는 연필, 볼펜보다는 만년필을 쓰는 등 오히려 비효율, 불편의 컨셉트가 강조되는 제품들이 유행하며 스피드 사회의 반란을 꾀할 것

몰스킨(Moleskin)

- 몰스킨이란 ‘두더지 가죽’이라는 뜻으로 어두운 색의 까끌까끌한 면사로 짠 싸구려 천을 일컫는 말로, 파리의 예술가나 문인들이 쓰는 싸구려 노트와 스케치북도 몰스킨을 씌워 만든 것이어서 그것 역시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됨
 - 프랑스 소기업에서 생산되던 몰스킨은 언젠부턴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1998년 이탈리아 회사 ‘모도&모도(Modo&Modo)’가 상표권을 확보해서, 예전에는 별 볼일 없는 싸구려였던 이 노트를 인조가죽과 튼튼한 제본으로 고상하게 장식해서 다시 판매했는데 작은 수첩 하나가 10유로를 넘었지만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인기 상품이 됨
- 지난 2백 년 동안 고흐, 피카소, 헤밍웨이 등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전설적인 메모용 노트로, 그들이 스케치나 낙서 그리고 감동적 이야기 소재들을 기록했다는 점을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여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
 -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창조성’ 트렌드에 힘입어 자유와 창조적 아이디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몰스킨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지나치게 기술화된 일상에 대한 저항, 아날로그적 저장매체에 대한 향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전통과 이어주는 상징적 부가 가치 등에 힘입어 매우 성공한 제품임

○ (시사점) 속도 경쟁과 느낌이 공존하는 패슬로 트렌드를 고려한 ‘패슬로 비즈니스’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임

- 기존 비즈니스 또한 이러한 패슬로 트렌드를 고려하여 사업의 개선과 확장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트렌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흐름에 저항하는 역 트렌드(counter trend)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 두 흐름의 공통분모를 잘 이해하면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컨설팅본부 본부장 박태일(02-2072-626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0.0	-2.6	-4.9	-0.7	1.6	5.0	2.6	3.7	1.7	2.6
유로 지역	0.5	-4.1	-2.5	-0.1	0.4	0.2	1.7	0.4	1.0	0.4
일본	-1.2	-5.2	-16.4	9.7	-0.3	3.4	2.8	6.8	3.0	4.5
중국	9.6	8.7	6.2	7.9	9.1	10.7	10.5	11.3	10.3	9.6
한국	2.3	0.2	-4.3	-2.2	1.0	6.0	5.9	8.1	7.2	4.4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0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4	2.97	2.53	3.29	3.40	0.01%p
	엔/달러	92.93	93.47	88.70	83.53	81.52	83.25	1.73¥
	달러/유로	1.4413	1.3510	1.2190	1.3634	1.3290	1.3144	-0.0146\$
	다우존스지수(p)	10,428	10,857	9,774	10,788	11,578	11,697	119p
	닛케이지수(p)	10,655	11,090	9,383	9,369	10,229	10,530	30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9	3.86	3.32	3.38	3.58	0.20%p
	원/달러(원)	1,164.5	1,131.3	1,222.2	1,140.2	1,138.9	1,119.6	-19.3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2.9	1,698.3	1,872.8	2,051.0	2,077.6	26.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83.43	75.29	79.95	91.40	89.38	-2.02\$
	Dubai	78.06	78.71	74.05	77.24	88.80	92.00	3.20\$
CRB선물지수	283.38	220.40	258.52	286.86	332.80	325.07	-7.73\$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